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경제학 기출 해설

< 총평 >

올해 경제학문제는 작년에 비하여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기대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노무사 경제학수준에서 중요한 개념은 모두 출제된 정상적인 출제라 생각된다.

특히 경제학원론 수준을 벗어났거나, 계산이 어려워 시간이 5분 이상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작년에 10여문제에서 올해는 3~4문제로 줄어든 것이 난이도를 쉽게 체감되게 만들었다.

올해 문제의 특징은 노동경제학 문제를 31번 이후로 배치하였고, 강사인 저도 처음 접하는 문제인 113번 문제와 2차 선택과목의 노동경제학 수준의 문제인 헤도닉 임금(hedonic wage) 이론과 학력선택 모형 등이 후반부에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까지 풀지 못한 수험생은 역설적이게도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81. 빵의 수요곡선은 $Q_d = 200 - P$ 이고 공급곡선은 $Q_s = P - 2$ 이다. 정부가 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P 는 가격,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이다.)

- ① 100, 1 ② 100, 2 ③ 200, 1 ④ 200, 2 ⑤ 200, 3

(정답) ③

[풀이]

보조금 이전의 균형은 $200 - P = P - 2 \Rightarrow 2P = 202 \Rightarrow \therefore P = 101, Q = 99$

보조금이 주어지면 공급곡선이 하방으로 보조금(2)만큼 평행이동하므로 공급곡선은 $Q_s = (P + 2) - 2 \Rightarrow Q = P$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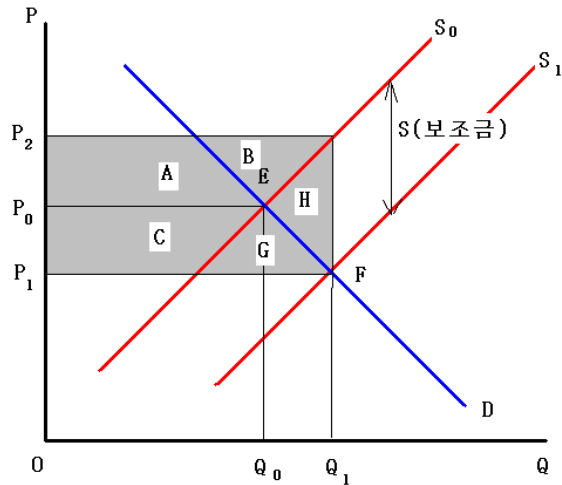
따라서 $200 - P = P \Rightarrow 2P = 200 \Rightarrow \therefore P = 100, Q = 100$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참고) $\square(A+B+C+G+H)$ 이므로 $100 \times 2 = 200$ 이다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참고) $\triangle(H)$ 이므로 $\frac{1}{2} \times 2 \times 1 = 1$ 이다.

(참고)

■ 보조금부과의 효과



· 최초의 균형점 E점에서 가격= P_0 , 균형량= Q_0

① S만큼의 보조금 지급

→ 공급곡선이 하방으로 S만큼 평행이동

→ 새로운 균형점 F점에서 (소비자)가격 = P_1 ,
균형량 = Q_1

② 생산자가격 = 가격(P_1) + 보조금(S) = P_2

③ 소비자혜택: $P_0 - P_1$, 생산자혜택: $P_2 - P_0$

④ 총보조금액: $\square(A+B+C+G+H)$

⑤ 소비자잉여 증가분: (C+G), 생산자잉여 증가분: (A+B)

⑥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triangle(H)$

82.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에 생긴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 그 상품은 열등재이다.
 ㄷ. 정상재 중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크면 필수재이다.
 ㄹ.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ㅁ.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②

[풀이]

- ㄱ. (O) (참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수준에 생긴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ㄴ. (O) (참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 그 상품은 열등재이다.
 ㄷ. (X) (참고) 정상재 중 수요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크면 사치재이다.
 ㄹ. (O) (참고)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ㅁ. (X) (참고)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크다. : 대체재 ($\epsilon_C > 0$)

(참고)

■ 수요의 소득탄력도 [income elasticity of demand]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epsilon_M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소득의 변화율}} = \frac{\frac{\Delta Q}{Q}}{\frac{\Delta M}{M}} = \frac{\Delta Q}{\Delta M} \frac{M}{Q}$$

(1) 정상재 (normal goods) ($\epsilon_M > 0$) : 소득이 증가할 때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① $0 < \epsilon_M < 1$: 필수재(소득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재화)

② $\epsilon_M > 1$: 사치재(소득변화에 민감한 재화)

(2) 열등재 (inferior goods) ($\epsilon_M < 0$) : 소득이 증가할 때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 수요의 교차 탄력도 [cross elasticity of demand]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epsilon_c = \frac{X\text{재 수요(량)의 변화율}}{Y\text{재 가격의 변화율}} = \frac{\frac{\Delta Q_X}{Q_X}}{\frac{\Delta P_Y}{P_Y}} = \frac{\Delta Q_X}{\Delta P_Y} \frac{P_Y}{Q_X}$$

(1) 대체재 ($\epsilon_C > 0$) :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2) 독립재 ($\epsilon_C = 0$) :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변하지 않는 재화

(3) 보완재 ($\epsilon_C < 0$) :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83.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9L^{1/3}K^{2/3}$ 이고, 노동투입량(L)과 자본투입량(K)은 각각 8과 27일 때, 자본의 한계생산(MP_K)과 평균생산(AP_K)은?

① 1, 3

② 2, 4

③ 3, 6

④ 4, 2

⑤ 4, 6

(정답) ⑤

[풀이]

■ Cobb-Douglas생산함수 ; $Q = AL^\alpha K^\beta$ ($A > 0$)

$$MP_K = \frac{\partial Q}{\partial K} = \beta AL^\alpha K^{\beta-1} = \frac{2}{3} \times 9L^{1/3}K^{-1/3} = 4\left(\frac{L}{K}\right)^{1/3} = 6 \times \frac{2}{3} = 4$$

$$AP_K = \frac{Q}{K} = \frac{AL^\alpha K^\beta}{K} = AL^\alpha K^{\beta-1} = 9L^{1/3}K^{-1/3} = 6$$

84.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②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경우보다 낮아진다.

③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때 장기한계비용이 장기평균비용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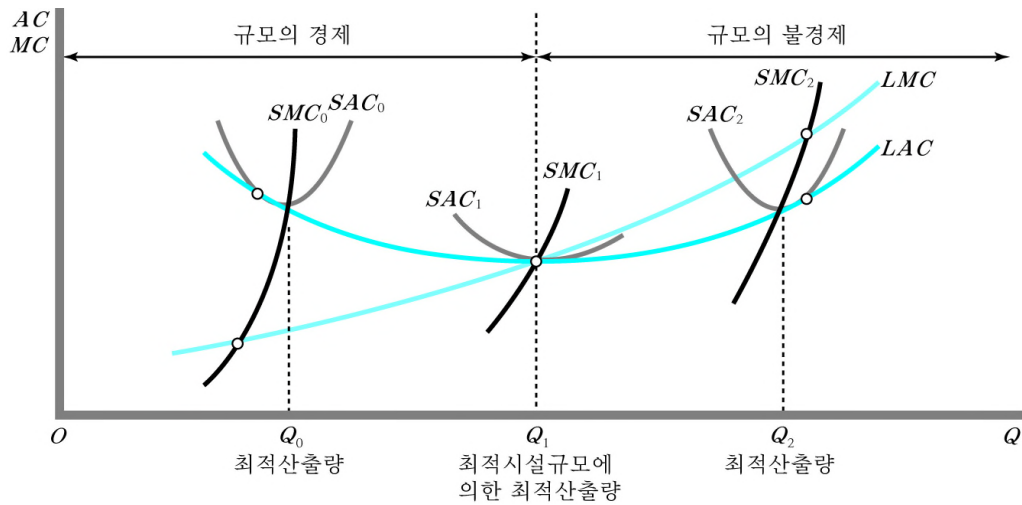
④ 투입요소를 일정 비율로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

⑤ 산출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정답) ⑤

[풀이]

■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



85. 소비자의 최적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슬러츠키(Slutsky) 분해는 가격변화의 효과를 대체효과와 가격효과로 나눈다.
- ② 가격효과는 항상 대체효과보다 크다.
- ③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두 재화는 완전보완재이다.
- ④ 소득효과는 재화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전반적 구매력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재화소비량의 변화이다.
- ⑤ 보상수요곡선은 가격변화로 인한 대체효과를 제거한 후 구해진 수요곡선이다.

(정답) ④

[풀이]

- ① (X) 슬러츠키(Slutsky) 분해는 가격변화의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눈다.
- ② (X) 가격효과는 소득효과의 부호에 따라서 대체효과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그리고 같은 수도 있다.
- ③ (X) 무차별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다.
- ④ (O) 소득효과는 재화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전반적 구매력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재화소비량의 변화이다.
- ⑤ (X) 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로만 구해진 수요곡선이다.

86.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경우,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단, 평균총비용은 U자 형태이고, 생산이 증가할 때를 가정한다.)

- ① 한계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 ②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 ③ 평균고정비용은 증가한다.
- ④ 평균가변비용은 항상 감소한다.
- ⑤ 평균고정비용은 불변이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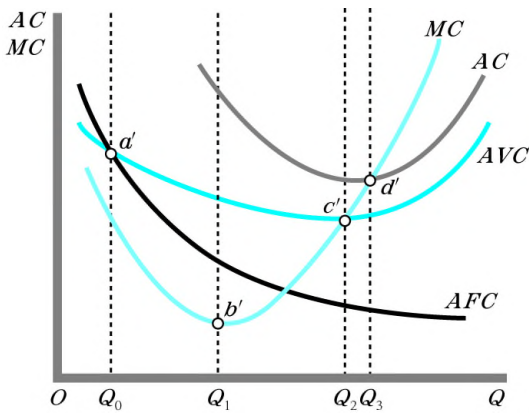
[풀이]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경우는 (참고)에서 $O \sim Q_3$ 이므로

- ① (X) 한계비용은 감소하다 증가한다.
- ② (O)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 ③ (X)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한다.
- ④ (X) 평균가변비용은 감소하다 증가한다.
- ⑤ (X) 평균고정비용은 감소한다.

(참고)

■ 단기 비용곡선과의 관계



87. 두 재화 X재, Y재를 통한 효용함수가 $U = X + 2Y$ 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하고 P_X, P_Y 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이다.)

- ㄱ.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 ㄴ. MRS_{XY} (한계대체율)는 일정하다.
- ㄷ. 두 재화의 대체효과는 0이다.
- ㄹ.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 관계이다.
- ㅁ. $MRS_{XY} < \frac{P_X}{P_Y}$ 일 때 X재만 소비한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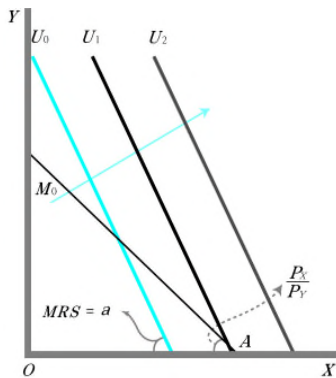
(정답) ①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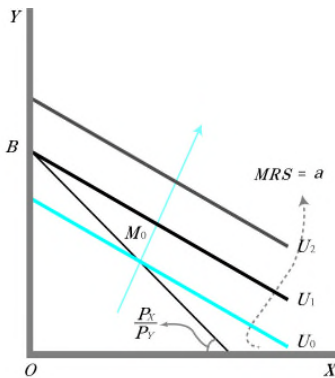
- ㄱ. (O)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 ㄴ. (O) MRS_{XY} (한계대체율)는 (참고) $\frac{1}{2}$ 로 일정하다.
- ㄷ. (X) 두 재화의 대체효과는 0 또는 ∞ 이다.
- ㄹ. (O)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 관계이다.
- ㅁ. (X) $MRS_{XY} < \frac{P_X}{P_Y}$ 일 때 (참고) Y재만 소비한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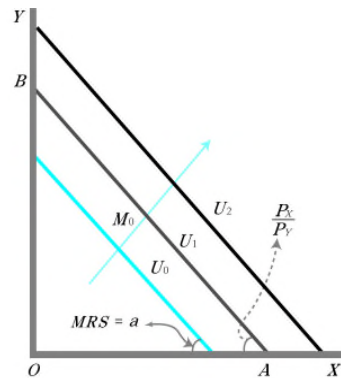
■ 완전대체재의 소비자균형 : 완전대체재 [$U(X, Y) = aX + bY$] 인 경우 : $MRS_{XY} = \frac{a}{b}$ (일정)



- ① ($MRS_{XY} = \frac{a}{b}$) $> \frac{P_X}{P_Y}$
 → X재만 구입(A점)
 → ICC는 X축이다.



- ② ($MRS_{XY} = \frac{a}{b}$) $< \frac{P_X}{P_Y}$
 → Y재만 구입(B점)
 → ICC는 Y축



- ③ ($MRS_{XY} = \frac{a}{b}$) $= \frac{P_X}{P_Y}$
 → 무수히 많은 해(선분 AB)
 → ICC는 XY 전영역이다.

88.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의 일정량 구입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다.
- ② 생산자잉여란 생산자가 재화의 일정량 판매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판매할 용의가 있었던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 ③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증감해야 하는 소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 ④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란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에서 가격변화 이후의 효용수준으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소득의 변화이다.
- ⑤ 효용함수란 일정한 공리를 만족하는 소비자의 선호 서열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정답) ①

[풀이]

- ① (X)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의 일정량 구입에 대하여 지불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차액이다.

89. 복점시장에서 쿠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두 기업의 역수요함수는 $P = 20 - q_1 - q_2$ 이다. 두 기업의 비용구조는 동일하며 고정비용은 없고 한 단위당 생산비용은 8일 때, 균형가격과 기업2의 균형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_1 은 기업1의 생산량, q_2 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 ① 10, 2 ② 12, 2 ③ 12, 4 ④ 14, 8 ⑤ 14, 10

(정답) ③

[풀이]

수요함수는 $P = 20 - Q$ 이므로 완전경쟁생산량은 $P = MC$ 이므로 $P = 20 - Q = 8 \Rightarrow \therefore Q = 12$

쿠르노균형에서의 산출량은 완전경쟁산출량(12)의 $\frac{2}{3}$ 이므로 8이다.

기업1의 생산량은 8의 $\frac{1}{2}$ 인 4이다.

90. 독점과 독점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독점기업이 직면한 공급곡선은 시장공급곡선 그 자체이다.
 ②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작을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③ 독점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④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감소한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정답) ⑤

[풀이]

- ① (X) 독점기업이 직면한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X) (참고)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가격과 한계수입의 차이가 클수록 독점도는 커진다.
 ③ (X) 독점경쟁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클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
 ④ (X)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면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한다.
 ⑤ (O)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필요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1) 이윤극대화 1계조건 \rightarrow 이윤함수의 1계 미분이 0 (극치를 갖는 조건) : 이윤극대화 필요조건

$$\frac{d\pi}{dQ} = \frac{dTR}{dQ} - \frac{dTC}{dQ} = MR - MC = 0 \text{ 이므로}$$

$$MR(\text{한계수입}) = MC(\text{한계비용})$$

2) 이윤극대화 2계조건 \rightarrow 이윤함수의 2계 미분이 음(위로 볼록)이므로

$$\frac{d^2\pi}{dQ^2} = \frac{d^2TR}{dQ^2} - \frac{d^2TC}{dQ^2} = MR' - MC' < 0$$

$$MR\text{곡선의 기울기} < MC\text{곡선의 기울기}$$

(참고) Hicks의 독점도

$$DM = \frac{P - MC}{P} = \frac{P - MR}{P} = \frac{P - P(1 - \frac{1}{\epsilon_d})}{P} = \frac{1}{\epsilon_d}$$

91.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_d = 8 - 0.25P$ 이고 공급곡선은 $Q_s = 0.5P - 4$ 라고 할 때, 균형가격 (P)과 생산자잉여는? (단, P는 가격,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이다.)

- ① 4, 8 ② 8, 8 ③ 8, 16 ④ 16, 16 ⑤ 16, 32

(정답) ④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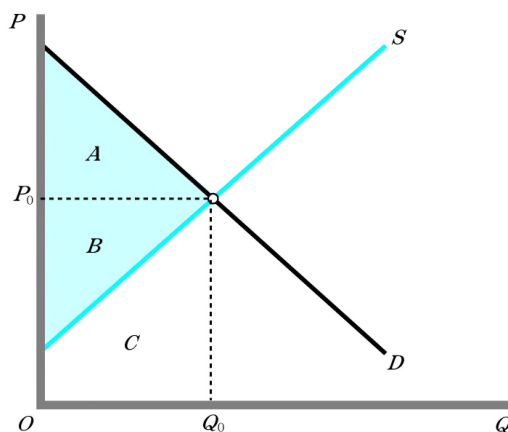
생산자잉여는 실제 받은 금액과 생산자가 받으려는 금액의 차이이므로

$$8 - 0.25P = 0.5P - 4 \Rightarrow 0.75P = 12 \therefore P = 16, Q = 4$$

공급곡선은 $Q_s = 0.5P - 4$ 의 가격축 절편은 8이므로 생산자잉여 : $\Delta B = \frac{1}{2}(16 - 8) \times 4 = 16$

(참고)

■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① 지불용의가 있는 금액 → A + B + C

실제 지불한 금액 → B + C

소비자잉여 : ΔA

② 생산자가 받으려는 금액 → C

실제 받은 금액 → B + C

생산자잉여 : ΔB

③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ΔA + ΔB

9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재화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 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② 조세부담은 모두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③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④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나 생산자에게 더 귀착된다.
 ⑤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정답) ②

[풀이]

■ 수요 · 공급의 가격탄력도와 조세의 귀착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부담이 크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수평)이거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수직)이면 조세는 모두 생산자에 귀착된다.

→ 수요곡선이 탄력적일 수록 소비자부담이 줄어든다

93.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최적생산량보다 크다.
 ㄴ.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직접통제 방식은 외부효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변화에도 신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ㄹ.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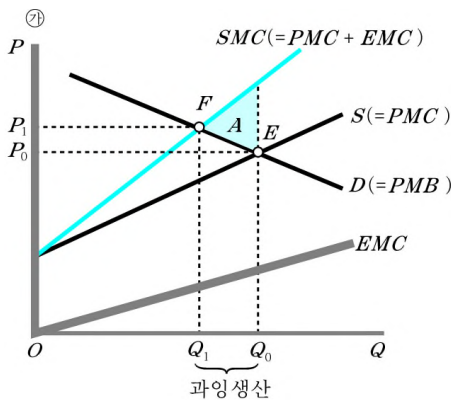
(정답) ②

[풀이]

- ㄱ. (O)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균형생산량은 사회적최적생산량보다 크다.
 ㄴ. (O) 외부효과는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X) 직접통제 방식은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나 외부성 측정의 어려움으로 상황변화에도 신속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
 ㄹ. (O)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_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참고)

■ 외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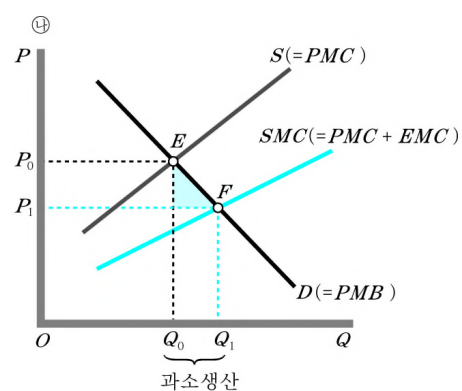


☞ 생산에 있어서 외부경제(오염, 소음)

→ 외부한계비용(EMC) > 0

(E점): $SMC(PMC + EMC) > PMC = PMB(= D)$

- ① 현 생산점: E점(Q_0, P_0)
- ② 바람직한 생산점: F점(Q_1, P_1)
- ③ 과잉생산: $Q_0 - Q_1$
- ④ 사회적 후생손실: $\triangl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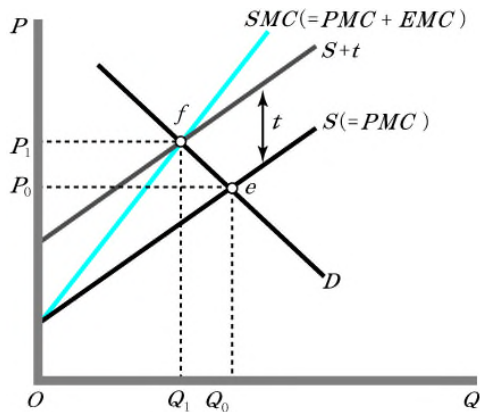
☞ 생산에 있어서 외부경제(양봉)

→ 외부한계비용(EMC) < 0

(E점): $SMC(PMC + EMC) < PMC = PMB(=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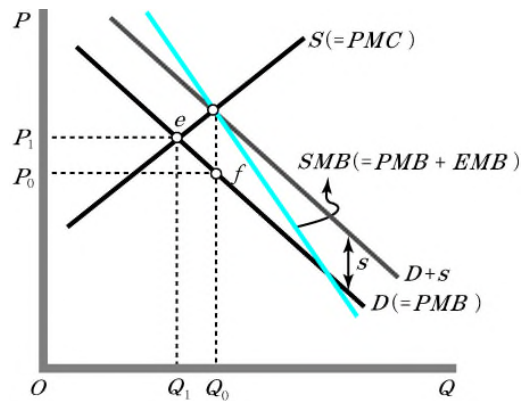
- ① 현 생산점: E점(Q_0, P_0)
- ② 바람직한 생산점: F점(Q_1, P_1)
- ③ 과소생산: $Q_1 - Q_0$
- ④ 사회적 후생손실: $\triangle B$

■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



② 조세부과(외부비용)경제

- ▶ 생산에 외부비용(외부경제)이 발생
 - 바람직한 산출량(Q_1) 수준에서
 - 조세(t) = $SMC - PMC$ 만큼 부과
 - 사회적편익비용(PMC)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생산량과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



② 보조금지급(외부비용)경제

- ▶ 소비에 외부비용(외부경제)이 발생
 - 재화단위당 s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
 - 사회적편익곡선(PMB)이 상방으로 이동
 - 생산량과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

94.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 ②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 ③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 ④ 전체 구성원의 소득기준 상위 10 % 계층이 전체 소득의 40 %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 ⑤ 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정답) ⑤

[풀이]

- ① (X) 지니계수 값이 작아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 ② (X)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있다.
- ③ (X)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이다.
- ④ (X) 전체 구성원의 소득이 완전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 ⑤ (O) (참고) 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참고)

■ 계층별 소득분배측정치 취하는 값의 범위

용어	범위	완전 균등 수치	완전 불균등 수치
10분위 분배율	$0 \leq 10\text{분위 분배율} \leq 2$	2	0
5분위 소득배율	$1 \leq 5\text{분위 배율} \leq \infty$	1	∞
지니계수	$0 \leq \text{지니계수} \leq 1$	0	1
애킨슨지수	$0 \leq \text{애킨슨지수} \leq 1$	0	1
로렌츠곡선		대각선	「형

95.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 ㄴ.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 ㄹ. 비경합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수 없다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풀이]

- ㄱ. (O)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 ㄴ. (O)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에의해 무임승차문제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
- ㄷ. (X) 배제불가능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 ㄹ. (X)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96. 동일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마트(mart) E와 H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마트가 전략을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와 H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E의 보수, 오른쪽 값은 H의 보수를 나타낸다.)

		H	
		광고함	광고 안함
E	광고함	(10, 4)	(8, 3)
	광고 안함	(3, 8)	(6, 4)

- 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 ②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③ H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④ 내쉬균형은 E와 H 둘 다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 ⑤ E와 H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정답) ①

[풀이]

E가 광고함으로 얻는 보수는 10 또는 8이고, 광고 안함으로 얻는 보수는 3 또는 6이므로 E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이고 마찬가지로 H가 광고함으로 얻는 보수는 4 또는 8이고, 광고 안함으로 얻는 보수는 3 또는 4이므로 H의 우월전략도 광고함이므로 우월전략균형은 모두 광고함이고 이때 보수는 (10, 4)이다.

97.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상소득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일시소득의 경우가 항상소득보다 작다.
- ② 생애주기이론에서는 같은 금액의 가처분소득을 가지더라도,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다른 소비성향을 보인다.
- ③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주로 의존하며, 미래의 가처분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 ④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사이의 값이며,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 ⑤ 항상소득이론은 사람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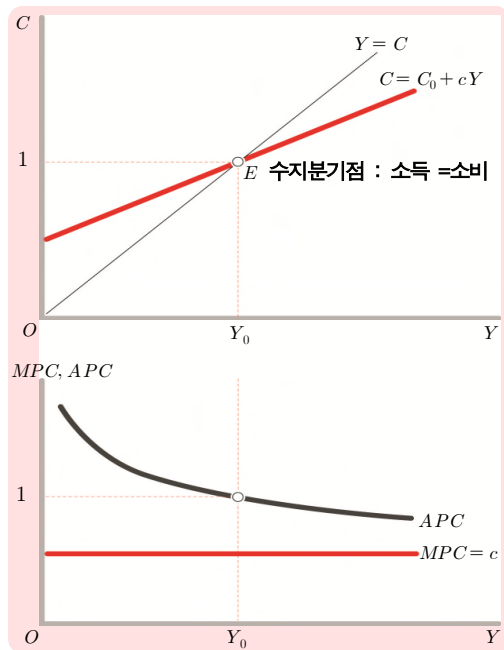
(정답) ④

[풀이]

- ④ 케인즈 소비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사이의 값이며, (참고)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참고)

■ 케인즈 소비함수



소비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C = C_0 + cY$$

(단, C_0 : 기초소비, c : 한계소비성향)

이 때 평균소비성향(APC) = $\frac{C}{Y}$ 으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므로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점점 작아지지만 한계소비성향(MPC)보다는 항상 크다.

즉, 항상 $APC > MPC$

소비함수가 소비축을 지나는 성질을 나타냄

98. 다음 표에 근거한 실업 관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년	2024년
취업자 수	1,000명	1,000명
비경제활동인구	2,000명	2,100명
생산가능인구	4,000명	4,000명
총인구	6,000명	6,200명

- ① 2024년의 고용률은 2023년보다 낮다.
 ② 2024년의 실업률은 2023년보다 낮다.
 ③ 2024년의 실업률은 50%이다.
 ④ 고용률은 총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⑤ 2024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보다 높다.

(정답) ②

[풀이]

- ① (X) 2023년의 고용률은 $\frac{1,000}{4,000} \times 100(\%) = 25(\%)$ 2024년의 고용률과 같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 이므로

- ② (O) 2023년의 실업률은 $\frac{2,000 - 1,000}{4,000 - 2,000} \times 100(\%) = 50(\%)$

$$2024년의 실업률은 \frac{1,900 - 1,000}{4,000 - 2,100} \times 100(\%) \approx 47(\%)$$

따라서 2024년의 실업률은 2023년보다 낮다.

(참고)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세 이상의 인구(A)		
비경제활동인구(C)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B)	
	취업자(D)	실업자(E)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frac{B}{A} \times 100 = \frac{B}{B+C} \times 100(\%)$$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frac{\text{실업자수}(E)}{\text{취업자수}(D) + \text{실업자수}(E)} \times 100$$

99. 특정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명목이자율이 5%이고, 이자소득세율이 10%일 때, 실질이자율과 세후명목이자율은?

- ① 2%, 2% ② 2%, 4.5% ③ 3%, 7% ④ 4.5%, 1.8% ⑤ 5%, 5.5%

(정답) ②

[풀이]

주어진 조건을 명목이자율(R_t) = 실질이자율(r_t) + 인플레이션율(π_t^e)에 적용하면

$$\text{명목이자율}(R_t) = \text{실질이자율}(r_t) + 3\% = 5\%$$

$$\text{실질이자율}(r_t) = 5\% - 3\% = 2\%$$

$$\text{명목세율은 } 5\% \times 10\% = 0.5\%$$

$$\text{세후 명목이자율은 명목이자율}(R_t) - \text{명목세율} = 5\% - 0.5\% = 4.5\%$$

100.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학공장의 100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인 경우, 국내총생산은 100억 원 증가로 표시된다.
- ② 우리나라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액이다.
- ③ 철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디지털도어록이 많이 생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증가한다.
- ④ 기존 주택의 거래,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주부의 가사노동,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제외된다.

(정답) ⑤

[풀이]

- ⑤ (X) 주부의 가사노동 제외되나,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포함된다.

(참고)

■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는 항목

GDP 에 포함되는 항목	GDP 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귀속임대료(자기집 사용료)	여 가
자가소비 농산물(농부)	자가소비 농산물(도시의 텃밭)
파출부의 가사노동	주부의 가사노동
신규주택매입	기존주택매입
국방, 치안서비스(공공재)	상속, 증여
금년 생산했지만 판매되지 않은 재고	주식가격, 부동산가격변동
회사채이자	국공채이자
가게가 구입한 목재(최종생산물)	목수가 구입한 목재(중간생산물)

101.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 ②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주 은행을 찾게 되는데, 이를 구두창비용이라 한다.
- ③ 인플레이션 조세란 통화발행을 통해 정부가 수입을 얻는 것이다.
- ④ 피셔(I. Fisher)가설이 성립한다면, 채권자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 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금, 외환에 대한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①

[풀이]

① (X)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발생원인이 된다.

(참고)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발생원인

-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의 공급 측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인에 의해 생산비가 상승하면 총공급곡선 (AS)이 상방으로 이동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임금인상에 의해 생산요소비용증가
 - ② 기업이 이윤(관리가격)을 인상
 - ③ 석유파동이나 원자재가격상승으로 인한 공급측 충격
- 한편 AS곡선의 상방이동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대책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A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기술진보, 연구개발비 증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102. 다음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20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이다.)

	2021년	2022년
명목GDP	1,050	1,210
실질GDP	1,000	1,100

- ① 202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이다.
- ②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10이다.
- ③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비해 5% 올랐다.
- ④ 2021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5이다.
- ⑤ 2022년의 명목경제성장률은 10%보다 높다.

(정답) ③

[풀이]

	2021년	2022년
명목GDP	1,050	1,210
실질GDP	1,000	1,100
GDP디플레이터	105	110

$$2021\text{년 } GDP \text{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 GDP}{\text{실질 } GDP} \times 100 = \frac{1,050}{1,000} \times 100 = 105$$

$$2022\text{년 } GDP \text{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 GDP}{\text{실질 } GDP} \times 100 = \frac{1,210}{1,100} \times 100 = 110$$

- ① (O) 202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00이 1,100으로) 10%이다.
 ② (O)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10이다.
 ③ (X) 2022년의 GDP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비해 $\frac{110-105}{105} \times 100(\%) \approx 4.8(\%)$ 올랐다.

(참고)

$$GDP \text{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 GDP}{\text{실질 } GDP} \times 100$$

103.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동일 기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② 소비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 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측정대상 품목수보다 적다.
 ③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에 100이다.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격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군의 가격변화를 나타낸다.
 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정답) ⑤

[풀이]

- ⑤ (X) 소비자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는 기준년도의 거래량(Q_0)이므로 모두 다르다.

(참고)

	라스파이레스 방식 (Laspeyres price index: LPI)	파셰 방식 (Paasch price index: PPI)
가중치	· 기준년도의 거래량(Q_0)을 가중치	· 비교년도의 거래량(Q_t)을 가중치
정의	$LPI = \frac{\sum P_t \cdot Q_0}{\sum P_0 \cdot Q_0} \times 100$ <p>(P_t : 비교년도 물가, Q_0 : 기준년도 거래량)</p>	$PPI = \frac{\sum P_t \cdot Q_t}{\sum P_0 \cdot Q_t} \times 100$ <p>(P_0 : 기준년도 물가, Q_t : 비교년도 거래량)</p>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이 비교적 간편하다. · 일반적(물가상승 때)으로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 신상품을 물가에 반영하지 못한다. ·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로 대체소비 반영하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년도의 가중치와 대상품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다. · 비교적 정확한 물가지수를 나타낸다.
사용지수	·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 GDP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 GDP}{\text{실질 } GDP} \times 100$

104.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창조를 통해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②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 ④ 기업이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금창조 금액은 더 많아진다.
- ⑤ 본원통화 1억 원을 증가시킬 때, 통화승수가 4라면 통화량은 4억 원 증가한다.

(정답) ④

[풀이]

- ① (O) (참고) 중앙은행이 증가시킨 화폐량과 예금창조를 통해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② (O) 이자율상승($r \uparrow$) \rightarrow 개인현금보유감소 \rightarrow 현금통화비율감소($c \downarrow$) \rightarrow 통화승수 증가($m \uparrow$)이므로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 ③ (O) (참고) 법정 지급준비금 증가 \rightarrow 지급준비율(z) 증가 \rightarrow 통화승수 감소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 ④ (X) 기업이 일용직 급여를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은행 조직밖의 누출이 증가하므로
예금창조 금액은 더 적어진다.

(참고)

■ 통화승수(m)

1) 현금통화비율(c)이 주어진 경우의 통화승수

$$m = \frac{M}{H} = \frac{M}{C+Z} = \frac{1}{c+z(1-c)}$$

$$[M = C+D, \quad H = C+Z, \quad c = \frac{\text{현금통화}(C)}{\text{통화량}(M)}, \quad z = \frac{\text{실제지준금}(Z)}{\text{예금통화}(D)}]$$

2) 현금예금비율(k)이 주어진 경우의 통화승수

$$m = \frac{M}{H} = \frac{C+D}{C+Z} = \frac{(k+1)D}{(k+z)D} = \frac{k+1}{k+z}$$

$$[M = C+D, \quad H = C+Z, \quad k = \frac{\text{현금통화}(C)}{\text{예금통화}(D)}, \quad z = \frac{\text{실제지준금}(Z)}{\text{예금통화}(D)}]$$

105. 폐쇄경제하에서 총공급곡선(AS)의 기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총수요의 변화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나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수직인 총공급곡선은 고전파의 이분법을 만족시킨다.
- ③ 단기에 있어 모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 ④ 단기에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 ⑤ 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의 명목임금 경직성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④

[풀이]

- ④ (X) 단기에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06.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을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고정이고, IS곡선은 우상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한다.)

- ① 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 ② 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소득이 감소한다.
- ③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④ 고정환율제하에서 순수출이 감소할 경우, 일정하게 주어진 환율에 대하여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 ⑤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지만 소득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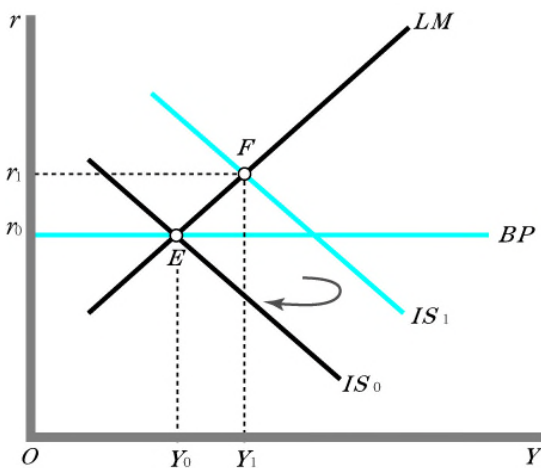
(정답) ③

[풀이]

LM곡선은 수직선을 가정하더라도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플레밍 모형에서는 효과의 크기가 변하지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정책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확대 재정정책		효과 강력	효과 무력
확대 금융정책		효과 무력	효과 강력

- ① (X) 변동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으로 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 확대 재정정책

→ 최초의 균형점 $E (Y_0, r_0)$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IS_0 \rightarrow IS_1$)

→ 자본수지 흑자(BP곡선 상방) : F점

→ 외환공급증가, 환율하락(평가절상)

→ 수출감소, 수입증가(경상수지 적자)

→ BP곡선 좌측이동(변화 없음)

IS곡선 좌측이동($IS_1 \rightarrow IS_0$) : E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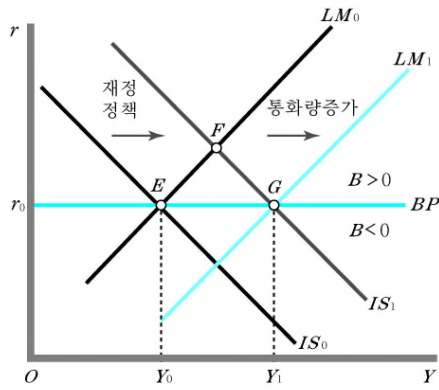
(산출량 불변, 이자율 불변)

→ 효과무력

- ② (X) 고정환율제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환율은 변하지 않고 소득은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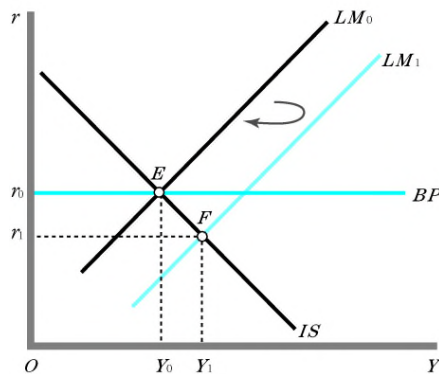
- ⑤ (X)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환율은 변하지 않고 소득도 변하지 않다.

■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재정·금융정책(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 개방소국) : BP곡선 수평



☞ 확대 재정정책

- 최초의 균형점 $E(Y_0, r_0)$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IS_0 \rightarrow IS_1$)
- 국제수지 흑자 (BP곡선 상방) : F점
(즉, 이자율 상승 → 자본유입)
- 中央은행(달러매입) →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LM_0 \rightarrow LM_1$)
- 새로운 균형점 : G점(Y_1, r_0)
- 효과적 (산출량 증가, 이자율 불변)



☞ 확대 화폐금융정책

- 최초의 균형점 $E(Y_0, r_0)$
- 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LM_0 \rightarrow LM_1$)
- 국제수지 적자 (BP곡선 하방) : F점
(즉, 이자율 하락 → 자본유출)
- 中央은행(달러매각) → 통화량 감소
- LM곡선 좌측이동($LM_1 \rightarrow LM_0$)
- 새로운 균형점 : E점(Y_0, r_0)
- 효과무력 (산출량 불변, 이자율 불변)

- ③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클 경우, 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지만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①번 그래프에서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자국화폐는 평가절하 되어 다시 IS곡선이 우측이동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므로 소득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107. 폐쇄경제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D-AS 곡선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개별적인 수요-공급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 ㄴ.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ㄷ. 정부지출이 감소할 경우, AD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ㄹ.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AD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정답) ②

[풀이]

- ㄱ. (X) AD-AS 곡선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개별적인 수요-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 ㄴ. (O)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참고)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AD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ㄷ. (O) 정부지출이 감소할 경우, (참고)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므로 AD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ㄷ. (X) 투자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물가하락($P_0 \rightarrow P_1$) \rightarrow 이자율하락($r_0 \rightarrow r_1$) \rightarrow 투자증가 \rightarrow 총수요증가하므로 AD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한다.

(참고)

■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과 AD 곡선의 이동

요 인	변 수	IS곡선 LM곡선 이동	AD곡선 이동
IS곡선의 이동요인	소비(C_0), 투자(I_0), 정부지출(G_0), 수출(X_0) 등이 증가		우측이동
	조세(T_0), 수입(M_0), 저축(S)이 증가		좌측이동
LM곡선의 이동요인	통화량(M_0)증가		우측이동
	화폐수요 증가(소득 불변)		좌측이동
	물가상승	좌측이동	AD곡선상의 이동

◆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과 AD 곡선의 이동방향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물가상승은 LM곡선을 좌측이동시키거나 AD곡선을 이동시키지 않고 AD곡선상의 좌상방으로 이동된다.

108. 아래 폐쇄경제 완전고용을 고려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콥-더글라스생산함수가 $Y = L^{0.5}K^{0.5}$ 이고, 자본(K)과 노동(L)의 공급량은 각각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초기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균형이자율변화(차이)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 $C = 10 + 0.8(Y - T)$ ○ $I = 8 - 2r$ ○ $G = 50$ ○ $T = 50$

- ① 3 ② 4 ③ 5 ④ 6 ⑤ 8

(정답) ③

[풀이]

$$Y = L^{0.5}K^{0.5} = \sqrt{100} \times \sqrt{100} = 100$$

$Y = C + I + G$ 식에 대입하면

$$1) \text{ 초기 균형: } 100 = 10 + 0.8(100 - 50) + 8 - 2r + 50 \Rightarrow 2r = 8 \therefore r = 4$$

$$2) \text{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 100 = 10 + 0.8(100 - 50) + 8 - 2r + 60 \Rightarrow 2r = 18 \therefore r = 9$$

따라서 균형이자율변화(차이)의 절댓값은 $9 - 4 = 5$ 이다.

109. 아래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현 수준의 중앙은행 명목통화량(M)이 100일 때,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이자율, P는 물가수준이고, 초기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 $C = 20 + 0.8(Y - T)$ ○ $I = 10 - 2r$ ○ $G = 50$
 ○ $T = 50$ ○ $\frac{M}{P} = Y - 10r$ ○ $P = 1$

- ① 50, 3 ② 100, 4 ③ 150, 5 ④ 200, 6 ⑤ 250, 8

(정답) ③

[풀이]

1)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은

$$Y = C + I + G = 20 + 0.8(Y - 50) + 10 - 2r + 50 \Rightarrow 2r = 40 - 0.2Y$$

위 식을 정리하면, $Y = 200 - 10r$ ----- ㉠

2)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은

$$\frac{M^d}{P} = \frac{M^s}{P} \Rightarrow Y - 10r = 100 \Rightarrow Y = 100 + 10r \quad \text{----- ㉡}$$

㉠과 ㉡을 연립하여 풀면 $Y = 150, r = 5$

110.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제산출량이 자연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면, 필립스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
 ② 단기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높이게 된다.
 ③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우하향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 해도 이 경제에서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④ 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의 경우, 단기에 필립스 곡선은 항상 수직이다.
 ⑤ 새고전학파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따를 경우, 정부정책이 실행될 시이를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필립스곡선이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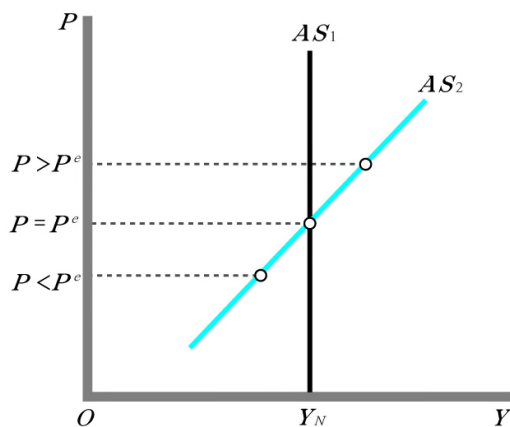
(정답) ④

[풀이]

- ④ (X) 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의 경우라도, 물가를 정확히 예상지 못하면 ($P > P^e$) 단기에 필립스 곡선은 우상향한다.

(참고)

■ 루카스 총공급곡선 총공급곡선 : $Y = \bar{Y} + \alpha(P - P^e)$



➡ 물가를 정확히 예상한 경우 ($P = P^e$)

▶ P 와 P^e 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Y 도 Y_N 과 일치하여 수직의 AS 곡선이 도출된다.

➡ 물가를 정확히 예상지 못한 경우 ($P > P^e$)

▶ 합리적기대를 하더라도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예상치 못한 물가의 변화로 P 와 P^e 보다 크다면 Y 도 Y_N 보다 큰 값을 갖게 되어 우상향하는 AS 곡선이 도출된다.

111. 아래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파 투자모형(neoclassical model of

investment)하에서 기업가가 구입하고자 하는 적정자본재(K) 수준은? (단, 자본재 가격이 다른 상품가격과 함께 상승하고 물가수준은 1 이라고 가정한다.)

- 자본재의 한계생산: $MP_K = 10 - 2K$ 곱 ○ 자본재의 가격: $P_K = 20$
 ○ 실질이자율: $r = 5\%$ 곱 ○ 감가상각률: $\delta = 5\%$ 곱

-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정답) ③

[풀이]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신고전파 투자모형은 기업이 최적의 자본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재의 한계생산이 자본재의 사용자 비용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

$$\begin{aligned} \text{자본재의 사용자 비용} &= \text{자본재의 가격} \times (\text{실질이자율} + \text{감가상각률}) = P_K(r + \delta) \\ &= 20 \times (0.05 + 0.05) = 2 \end{aligned}$$

$$\text{즉, } MP_K = P_K(r + \delta)$$

$$\text{그러므로 } 10 - 2K = 2 \Rightarrow 2K = 8 \therefore K = 4$$

112. 아래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intertemporal cho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비자는 두 기간 동안만 생존하고, 현재와 미래소비는 정상재이다.)

- ㄱ. 현재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닌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ㄴ. 차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는 평생 동안 번 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ㄷ. 제1기 또는 제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제1기 및 제2기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
 ㄹ.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하면 현재소비는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정답) ④

[풀이]

ㄱ. (O) 현재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닌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ㄴ. (X) 차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는 현재 소득에 의존한다.

ㄷ. (O) 제1기 또는 제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참고) 2. 제1기 및 제2기 소비를 모두 증가시킨다.

$$(1+r)C_1 + C_2 = Y_1(1+r) + Y_2$$

ㄹ. (X)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발생하면(참고) 4. 현재소비는 감소하고 미래소비는 증가한다.

(참고)

■ 기간 간 소비선택(intertemporal choice)

1. 개념

현재소비는 금기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연구한 피셔의 이론이다.

2. 예산선

- ① 현재소득 Y_1 , 미래소득 Y_2 , 현재소비 C_1 , 미래소비 C_2 라 하고 이자율 r 로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

총소비의 미래가치 $\Rightarrow (1+r)C_1 + C_2 = Y_1(1+r) + Y_2 \Leftarrow$ 총소득의 미래가치

- ② 위 식을 C_1, C_2 에 대하여 정리하면 $C_2 = -(1+r)C_1 + Y_1(1+r) + Y_2$ 이 되고 이는 제2기 소비축의 절편은 $Y_1(1+r) + Y_2$ 이고 기울기는 $-(1+r)$ 인 우하향하는 직선

3. 효용극대화 조건

- (1) 효용함수

$$U = U(C_1, C_2) \quad (\text{현재소비 } C_1, \text{ 미래소비 } C_2)$$

- (2) 소비자균형조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Rightarrow MRS_{12} = 1+r \Leftarrow$ 예산선의 기울기

4. 이자율변화에 의한 소비자균형점의 변화

- ① 이자율 상승은 총소득의 현재가치($Y_1 + \frac{Y_2}{1+r}$)를 감소시키고 미래가치 [$Y_1(1+r) + Y_2$]를 증가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부존점(A)을 회전축으로 예산선을 회전이동 시킨다.
 ② 이때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소득효과	대체효과(차이 없음)
저축자	이자율상승 \rightarrow 이자수입증가 \rightarrow 소득증가 \rightarrow 현재소비증가	이자율상승 \rightarrow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상승 \rightarrow 현재소비감소 (저축증가)
차입자	이자율상승 \rightarrow 이자부담증가 \rightarrow 소득감소 \rightarrow 현재소비감소	이자율상승 \rightarrow 현재소비의 기회비용상승 \rightarrow 현재소비감소 (차입감소)

113.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노동시장 근로(labor)와 가구생산(household production)에 쓸 수 있도록 각자에게 10시간씩 주어졌다. 각각의 활동에 10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가구생산	근로
남편	10만원	20만원
아내	25만원	15만원

소득(노동)-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였을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로축은 가구생산액(L), 세로축은 근로소득액(Y)이고, 한계대체율($MRS = \left| \frac{\Delta Y}{\Delta L} \right|$)은 체감한다.)

- ① 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시간의 노동시장 근로를 해야한다면, 남편이 한다.
 ② 이 가구가 근로를 통해 21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③ 남편의 비교우위는 가구생산에 있다.

- ④ 두 사람이 미혼일 경우와 비교하여 결혼 후에 가구의 기회집합이 확장되는 것은 전문화와 관련이 없다.
 ⑤ 이 가구의 예산선 기울기는 굴절되지 않는다.

(정답) ①

[풀이] 모든 시험에서 처음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참고만 할 것 (외국 경제학 번역서 연습문제임)

- ① (O) 만약 두 사람 모두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1시간의 노동시장 근로를 해야한다면, 남편이 근로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남편이 한다.
- ② (X) 이 가구가 근로를 통해 21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가구의 근로시간은 남편 7시간과 아내 4시간이다.
 → 남편이 근로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돈을 벌려면 남편이 먼저 돈 버는 시간을 풀로 채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아내가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좋으므로
 남편은 10시간 근로하면 20만원 벌 수 있으므로 (10시간 × 2만원/시간)
 아내는 10시간 근로하면 15만원 벌 수 있어. (10시간 × 1.5만원/시간)
 총 21만원을 벌려면, 일단 남편이 10시간 동안 일해서 20만원을 벌고, 나머지 1만원은 아내가 벌어야 한다. 아내는 1시간에 1.5만원 버니까, 1만원 벌려면 2/3 시간만 일하면 된다.
 그러므로 21만원 벌려면 남편 10시간, 아내 2/3시간 근로해야 효율적이다.
 (참고로 남편 7시간 + 아내 4시간 근로 시 소득은 $7 \times 2 + 4 \times 1.5 = 14 + 6 = 20$ 만원이다.)
- ③ (X) 남편의 비교우위는 근로에 있다.
- ④ (X) 결혼해서 이렇게 누가 뭘 더 잘하는지 따져서 일을 나누어 하는 '전문화'를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집안일 가치와 근로소득 가치를 얻을 수 있어. 즉, 만들 수 있는 것들의 조합이 더 많아지고 좋아진다. 따라서 전문화와 관련이 있다.
- ⑤ (X) 효율적인 가구생산액과 근로소득액의 조합을 나타내는 선을 PPC(생산가능곡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마치 가구의 예산선처럼 나타내어진다.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포기하는 가치 비율이 다르므로, 이 선은 매끄럽지 않고 꺾이는 모양이 된다. (자세한 그래프는 생략)

114.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4,0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상태변화는 없으며,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4%와 16% 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취업자 수는?

- ① 3,000만 명 ② 3,100만 명 ③ 3,200만 명 ④ 3,300만 명 ⑤ 3,600만 명

(정답) ③

[풀이]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취업자수} + \text{실업자수}} = \frac{s}{s+f} = \frac{\text{실직률}}{\text{실직률} + \text{구직률}} = \frac{4}{4+16} = 20(\%)$$

그러므로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4,000만 명) × 실업률(20%) = 800(만명)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4,000만 명) - 실업자수 (800만명) = 3,200만 명

(참고)

■ 자연(균제상태)실업률

경제활동인구가 고정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취업자(E)중 실직률(job separation rate)을 s 라 하고 실업자(U)

중에서 구직률(job finding rate)을 f 라 한다.

$$\text{자연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취업자수} + \text{실업자수}} = \frac{U}{U+E} = \frac{U}{U+\frac{f}{s}U} = \frac{s}{s+f} = \frac{\text{실직률}}{\text{실직률} + \text{구직률}}$$

115.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ML_L = -10L + 30$ 이다. 제품가격 10, 임금 100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고용량은? (단, L 은 고용량이다.)

-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정답) ③

[풀이]

$$\text{요소가격}(w) = VMP_L = (MP_L \times P)$$

$$VMP_L = (MP_L \times P) = 10(-10L + 30) = 100 \Rightarrow -10L + 30 = 10 \Rightarrow 10L = 20 \therefore L = 2$$

(참고)

■ 이윤극대화(최적고용) 조건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면

$$\text{요소가격}(w) = VMP_L = (MP_L \times P)$$

116.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은 동일할 때, 아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된다.
- ㄴ.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자집단과 고객이 차별하는 근로자집단 간 직종분리를 야기한다.
- ㄷ.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 ㄹ.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풀이]

ㄱ. (O)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된다.

- ㄴ. (O)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직종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근로자집단과 고객이 차별하는 근로자집단 간 직종분리를 야기한다.
- ㄷ. (X) 고객에 의한 선호(기호)차별은 고객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근로자집단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 ㄹ. (O)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 노동시장에의 차별

(1) 고용주에 의한 차별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이란 보상적 임금격차에 의한 차이를 반영한 뒤에도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의미한다. 노동자를 선호차별하는 기업은 임금이 상승하여 불리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은 임금이 하락하여 유리하므로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임금의 같아지는 노동량으로 조정이 된다.

(2) 소비자에 의한 차별

(3) 피고용자에 의한 차별

(4) 통계적 차별

통계적 차별이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이해부족과 잘못된 정보로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된다. 통계적 차별 때문에 동일한 기능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임금의 차이가 생기고, 기업에서는 평균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주 이직을 하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5) 성별 임금차별

생산성의 차이가 없는 경우 고용주가 남성을 더 높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경우

(6) 학력별 임금차별

생산성의 차이가 없는 경우 고용주가 고학력자를 더 높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경우

117.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서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감소시킨다.
- ㄴ. 근로자의 비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
- ㄷ. 근로자의 이직 확률을 낮춘다.
- ㄹ. 우수한 근로자를 기업으로 끌어들인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ㄷ, ㄹ

(정답) ②

[풀이]

- ㄱ. (O)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감소시킨다. ⇒ (참고) 태업(도덕적 해이)방지모형
- ㄴ. (X) 근로자의 비근로소득을 증가시킨다.
- ㄷ. (O) 근로자의 이직 확률을 낮춘다. ⇒ (참고) 노동이직모형

ㄹ. (O) 우수한 근로자를 기업으로 끌어들이다. ⇒ (참고) 역선택 모형

(참고)

■ 효율성임금이론(실질임금 경직성)

(1) 가정

- ① 실질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좌우한다.
- ② 효율성임금이란 실질임금 1단위당 근로의욕이 최대가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2) 균형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효율성임금이 지속되는 미시적 근거

- ① 노동이직모형
높은 실질임금이 이직률을 낮춘다.
- ② 태업(도덕적 해이)방지모형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근무태만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역선택 모형
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효율성임금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④ 영양상태 향상모형 (산업화 초기에 해당함)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영양상태를 향상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

118.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 은 근로시간, W 는 시간당 임금이다.)

○ 노동공급곡선 : $L_s = W + 10$ ○ 노동수요곡선 : $L_d = -2W + 20$

- ① 1/4 ② 1/3 ③ 1/2 ④ 1 ⑤ 3/2

(정답) ②

[풀이]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 재화시장에서의 조세와 동일하므로 노동공급이 상방으로 1만큼 이동하므로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효과이다.

1) 급여세(payroll tax) 부과 전

$$W + 10 = -2W + 20 \Rightarrow W = \frac{10}{3}, L = W + 10 = \frac{10}{3} + 10 = \frac{40}{3}$$

2) 급여세(payroll tax) 부과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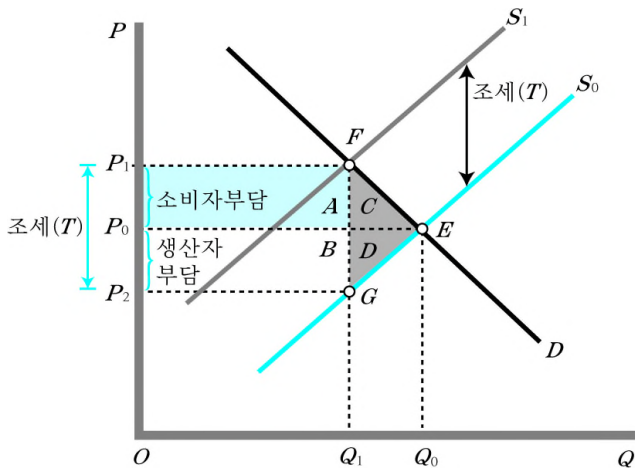
노동공급곡선 : $L_s = (W - 1) + 10 = W + 9$, 노동수요곡선 : $L_d = -2W + 20$

$$W + 9 = -2W + 20 \Rightarrow 3W = 11 \therefore W = \frac{11}{3}, L = W + 9 = \frac{11}{3} + 9 = \frac{38}{3}$$

사중손실은 (참고)에서 면적 C+D이므로 $\frac{1}{2} \times \left(\frac{40}{3} - \frac{38}{3} \right) = \frac{1}{3}$

(참고)

■ 조세부과의 효과



119. 헤도닉 임금(hedonic wage)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부상확률, 세로축은 임금이고 근로자는 위험기피자로 가정한다.)

- 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 ② 이윤이 다른 A기업의 등이윤곡선이 2개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윤의 크기가 크다.
- ③ 근로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는 약간 더 위험한 일로 바꾸려할 때 요구하는 유보가격과 같다.
- ④ 근로자와 기업의 매칭은 (부상확률, 임금) 조합에 따라 상호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 ⑤ 완전경쟁에서 기업이 제안하는 일자리의 (부상확률, 임금) 조합은 이윤이 0인 등이윤곡선상에 있다.

(정답) ②

[풀이] (2차 선택과목의 노동경제학 수준의 문제이므로 참고로만 하여도 된다.)

헤도닉 임금 이론은 일자리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예를 들면 위험한지, 편안한지 같은 것!)이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보상적 임금 격차'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근로자는 위험을 싫어하고(위험기피자), 기업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대가가 든다.

- ① (O)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만들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므로, 만약 위험도를 높여서 안전 비용을 줄이면, 똑같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도가 올라가면 (가로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임금도 같이 올라가야 같은 이윤이 유지되므로 등이윤곡선은 우상향한다.
- ② (X) 이윤이 다른 A기업의 등이윤곡선이 2개 있을 때, (가로축: 부상확률, 세로축: 임금) 만약 똑같은 위험도(가로축 위치가 같음) 위에 있는 곡선일수록 이윤은 작아진다.
- ③ (O) 근로자는 위험한 걸 싫어하므로 조금이라도 더 위험한 일을 하려면 그만큼 임금을 더 요구할 것이다. 근로자의 무차별곡선은 똑같은 행복도를 주는 위험-임금 조합들을 연결한 것이므로, 이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근로자가 위험 1단위 증가에 대해 기꺼이 감수하려는 또는 요구하는 임금 변화량이다. 따라서 이것을 유보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 ④ (O) 근로자와 기업의 매칭은 (부상확률, 임금) 조합에 따라 상호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 ⑤ (O)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부상확률, 임금) 조합들은 이윤이 0인 등이윤곡선 위에 놓이게 된다.

(참고)

헤노닉 임금(Hedonic Wage)-격차

고통스럽고 불유쾌한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요구를 반영한 임금 또는 편하고 쾌적한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대가 지불 의사를 반영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보상적 임금격차(보상임금격차)와 관련된다. 헤도닉 임금이론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직장의 다른 특성은 모두 동일하나 산업재해의 위험도만은 다르다. (변수-산업재해의 위험도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뜻)
- ②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 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④ 기업은 좋은 노동조건을 위해 산업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120. 학력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로축은 교육년수, 세로축은 임금이다.)

- ① 임금-학력 곡선은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 ②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로 교육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알 수 있다.
- ③ 능력이 다른 사람은 상이한 임금-학력 곡선을 갖는다.
- ④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년수를 선택한다.
- ⑤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정답) ④

[풀이]

- ① (O)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려고 하므로 교육년수가 늘어날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 ② (O)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교육년수가 1년 늘어날 때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이 교육에 투자했을 때 얻는 '한계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O)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똑똑하거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능력이 좋은 사람은 같은 교육년수에서도 더 높은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더 적은 교육으로도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으므로 능력이 다르면 임금-학력 곡선의 모양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X)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육년수를 선택한다.
'할인율'이란 미래의 소득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할인율이 높은 사람은 미래 소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반대로 할인율이 낮은 사람은 미래 소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교육)하는 걸 더 선호한다.
따라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할인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육년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⑤ (O) 임금-학력 곡선의 기울기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